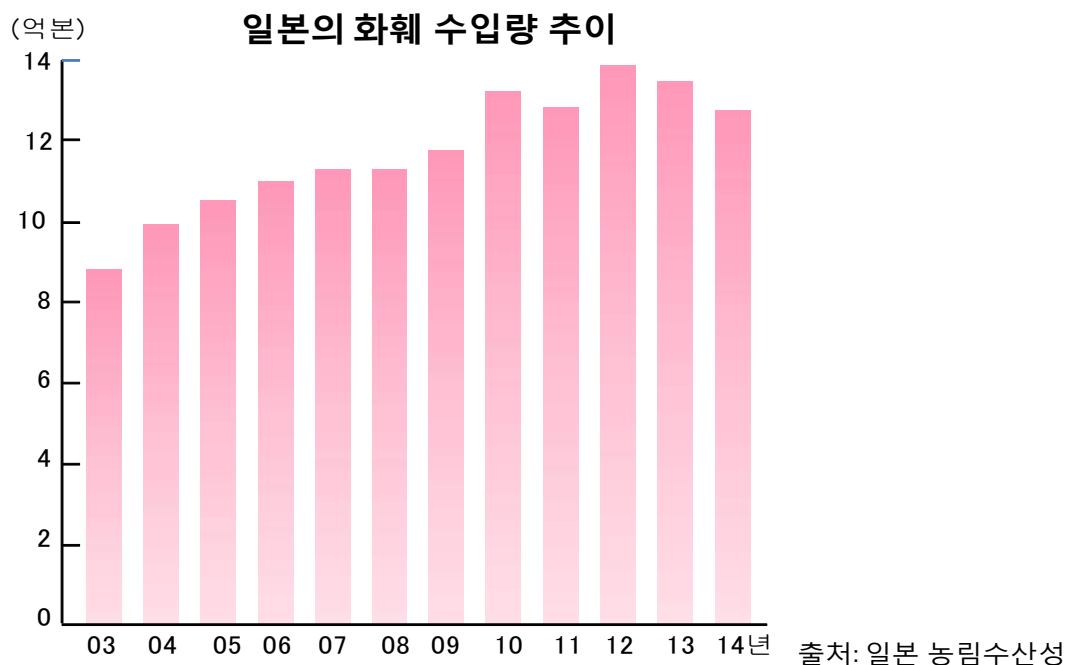


`14년 일본 절화 수입 감소

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의 `14년 절화 수입량은 전년보다 5.2% 감소한 12억 7659만본이었으며 2년 연속으로 감소하였다. 주력 국화는 `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, 장미는 지난 10년 동안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. 도매 업체들은 엔저 진행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수입량은 감소 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■ 엔저에 인한 수입량 감소

- 절화 수입량은 2000년 이후 증가 경향에 있었으나 `11년은 동일본대지진에 인한 소비축소로 수입량이 감소하였다. `12년은 13억 8901만본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`13년은 엔저 영향에도 불구하고 `13억 4604만본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.
- 그러나 `14년은 엔저현상이 심화되어 수입을 제제하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`11년 이후 3년만에 12억본대로 하락했다.



■ 품목별 현황

- 품목별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화가 3억 1036만본으로 전년대비 7.2% 감소했다. 특히 주력 국가인 말레이시아산이 강우 등 기후 불량으로 3.3 % 줄어든 것이 영향이 컸다. 중국산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26.3% 감소한 반면, 베트남산은 12% 증가하여 중국을 제치고 2위 국가로 부상했다.
- 장미는 6529만본으로 11.1% 감소했으며, 6000만본 대는 '03년 수준으로 최대 수출국인 케냐가 엔저를 이유로 대일 수출을 자제한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. 케냐산 장미의 수입실적은 2124만본으로 전년대비 6.6% 감소하였으며 가격은 1본 70엔으로 전년보다 14% 올랐다. 감소 경향에 있는 인도산은 '14년에 10%정도 감소했다. 도매회사에 따르면 인도산은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이 나빠 향후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정만된다.
- 카네이션은 3억 2747만본으로 전년 수준이며, 주력 콜롬비아산이 포함, 에콰도르산이 56% 증가, 중국산이 9.8% 감소했다.
- 도매회사는 예약취급이 가능한 산지에서의 수입은 증가세에 있으나 오본, 피안 등 각 행사 시기의 위탁품(스팟)으로 취급된 산지의 판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.

(출처: 일본농업신문)

■ 한국산 화훼의 대일 수출실적 및 시사점

〈 화훼류 대일 수출실적 추이〉

품목	2011년		2012년		2013년		2014년		증감률	
	중량	금액	중량	금액	중량	금액	중량	금액	중량	금액
화훼-계	7,286	73,214	6,729	70,366	5,819	44,991	3,924	27,767	-33%	-38%
백합	3,065	33,073	2,722	30,067	2,475	19,864	1,562	12,300	-37%	-38%
장미	2,316	25,060	2,118	26,579	1,727	14,778	1,151	7,440	-33%	-50%
국화	1,446	11,190	1,396	9,731	1,185	6,882	824	4,701	-30%	-32%
양란	124	1,005	163	1,115	148	977	137	998	-8%	2%
카네이션	38	345	51	265	17	263	12	187	-29%	-29%
기타절화	297	2,541	278	2,610	266	2,228	238	2,142	-11%	-4%

출처: kati수출통계

- 엔저로 인하여 한국산 화훼의 '14년 대일수출 실적은 전년대비 중량 33%, 금액 38% 각각 감소하였으며, 중량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
- 특히 장미에 관해서는 금액 수준으로 '13년 대비 1/2규모로 감소하였으며 타 수출국에 비해 감소 폭이 큼
- 엔저 추세는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, 화훼 전체 수출량의 약 70%를 차지하는 대일 수출의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 및 대응이 필요함